

보도해명자료

(‘13.4.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·중 FTA 개방률 낮은 수준”

(‘13.4.17, 헤럴드 경제)

1. 기사내용

-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이 계획보다 개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
 - 한국은 농업부문, 중국은 제조업 부문 타격을 우려하고 있어, 기체결 FTA와 같은 수준의 개방률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
 - 정부조직개편 결과 한·중FTA 협상에 산업부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,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입장도 강화된 상황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우리 정부는 FTA 체결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러한 원칙은 한·중 FTA 협상 출범시 양국이 확인한 바 있음.
- 한·중 FTA 협상의 개방률은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움.
- 정부는 한·중 FTA 추진에 있어, 농수산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.

※ 관련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무단장(2110-4500), 유성우팀장(2110-4461)